

광양제철소, 창의적 설비 개선… 안전·효율 높인다

설비부문 수평전개 활성화 발표

생산성·효율성·범용성 등 평가
‘냉각용 질소 차단’ 최우수 사례
“직원 아이디어 제철소 경쟁력”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제철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은 물론 저비용·고효율의 수평전개 문화를 확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광양제철소는 안전성 제고와 원가 절감, 설비 강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된 사례를 공유하는 ‘설비부문 수평전개 활성화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2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제철소 소본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이미 현장에 적용돼 검증이 완료된 우수사례를 신속하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혁신성과 창의성, 업무 효율·비용 절감·생산성 향상 등 정성·정량적인 개선 효과, 타 공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 등에 대

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

먼저 최우수상으로는 설비 센서 냉각용 질소 사용량을 절감해 에너지비 감축에 기여한 사례가 선정됐다.

고체 상태의 금속을 녹여 액체로 만든 뒤 이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주조 공정’ 설비에는 공정을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틀에 담긴 쇳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다.

이때 쇳물의 뜨거운 온도로부터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냉각용 압축 질소를 투입하게 되는데,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냉각용 질소가 지속 투입돼 에너지가 과다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에 비주조 구간에도 질소 투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밸브를 설치했다.

아울러 실시간 질소 압력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질소 투입량을 감시하는 장치도 구축해 질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연주공장에 적용된 해당 시스템은 1연주와 3연주공장 등 타 공장에도 확



지난 12일 광양제철소 소본부에서 진행된 ‘설비부문 수평전개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센서 냉각용 질소 사용량 저감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광양제철소 연구정비섹션 직원들이 센서에 투입되는 질소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대 구축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질소 사용 감축으로 추가적인 에너지비 절감을 실현했다는 창의성과 정량적 성과가 인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수상에는 제강 배출가스 설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선정됐다. 그동안 고

온 환경의 배출가스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만 점검이 가능했는데, 이를 상시적인 점검 체계로 전환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설비에 온도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 실시간으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로써 사전에 장애를 예방하고, 생산성 제고는 물론 조업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광양제철소는 타 배관 개소에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안정적인 설비 관리에 보탬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와이어를 활용한 원거리 안전핀 체결장치로 설비 점검 과정간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인 사례와 4냉연공장 설비 내 모터별 토크(회전력)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평균값과 차이가 발생하면 알람을 즉각 발송, 특정 모터의 부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터 토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고재윤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발표대회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철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철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중마도서관, ‘벽돌책 완독 챌린지’ 2기 운영

독서 인증 후 다양한 혜택

전라남도 광양중마도서관은 시민들의 깊이 있는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벽돌책 완독 챌린지’ 2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벽돌책 완독 챌린지’는 두꺼운 도서를 참가자들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꾸준히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소감을 나누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주제 도서로 선정해 높은 완독률과 참여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번 2기 주제 도서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으로, 저자는 기술과 플랫폼 발달로 집중력이 약화된 현대인의 삶을 조명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과 실마리를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독서 인증 챌린지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독서 전문가의 코칭으로 운영된다. 완독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완독자 상품과 도서 대출 권수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16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https://lib.gwangyang.go.kr>) 내 ‘도서관 서비스 → 수강 신청’ 탭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797-388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안전신문고’ 여름철 집중신고 운영

호우·태풍, 산사태위험 등

전라남도 광양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시설 파손(옹벽붕괴·포트홀), 강풍위험(시설물 낙하), 전기시설 위험(감전사고)

을 신고할 수 있다. 산사태 위험 유형에는 토사 유출, 낙석,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방치 등이 포함된다.

폭염 분야는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공공장소 음수대 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놀이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정비(인명구조함),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여름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의 ‘퀵메뉴’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신뢰도 입증

국제 비교속련도평가서 3년 연속 우수등급 받아

전라남도 광양시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최근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한 잔류농약 국제 비교속련도평가(FAPAS)에서 15개 농약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비교속련도평가(FAPAS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토양·중금속·미생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농·식품 분석능력 평가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33개 분석기관에 동일한 시료(무 푸레)를 제공해 분석값을 제출받은 후, 분석기관의 결과값으로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해 ± 2 이내일 경우 분석 신뢰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제출한 15개 농약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아 국제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재확인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강화된 잔류농약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분석체계 고도화에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연구원들이 잔류농약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LC-MS/MS 등 첨단 잔류농약 분석 장비 39종을 갖추고 있으며, 총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실은 지난 2023년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4년 299건, 2025년 6월 기준 183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며 분석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광양시에 주소와 농지

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출하 전 검사의 경우 무료로 분석이 가능하다.

잔류농약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일~14일 전에 농산물안전분석실(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과학영농관 3층) 또는 관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분석의뢰서와 함께 시료(농산물 0.5~1kg)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 의뢰와 관련한 사항은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061-797-363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접수

내달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는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예산 신청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는 매년 1월 신청 받았으나, 올해부터 관련 지침이 변경되며 신청 기간이 6월~7월로 조정됐다. 특히 수실류에 대한 가지치기 지원 대상이 기존 밤나무에서 뽕은감, 대추 등으로 확대돼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 임업 관련 종사자이며,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회 산림분과’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전라남도에도 2026년도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